

Ronchamp 성당의 건축해석

李 晶 圭

(배재대학교 토목건축공학부 건축공학과 조교수)

1. 서론

롱상성당은 르꼬르뷔제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수 많은 건축가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익숙한 건물이다.

그러나 그 조소적 형태의 강렬함이 너무 전면에 드러나 있어 그 건축적 실체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잘 알려진 작품을 다시 한번 분석하여 재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J.P.Bonta의 방법론에 많은 빛을 지기로 한다. 그는 1969년부터 8년간의 노력 끝에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이란 책을 저술하였다.¹⁾

이 책에서는 그는 많은 해석가들의 해석방법과 규범적 해석에 의문점을 던지며 정당한 해석의 근거를 찾는 중요성과 재해석 과정을 규명해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유사한 순서로 먼저 롱상에

대한 기존의 규범적 해석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추이를 알아보고, 롱상의 건축적 실체를 다시금 분석한 다음, 재해석이 가능한 실체로부터 여러 재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2. 해석의 추이

르꼬르뷔제의 롱상에 있는 노트르담 뒤 오순례 성당 프로젝트가 1953년 발표되자 근대 건축 운동의 고수자 대부분에게는 당황스러운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갑자기 모든 배척되었던 형태가 재등장한 것이다.

조소적 매스와 벽의 구멍, 표현적인 곡선과 동굴같은 내부였다.²⁾

「비합리」. 건축적 조각이나, 무정형, 이교, 원시, 선사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등 비평이 - 건축의 문체와 더불어 종교적 문체로서 - 여러차례 던져졌다.³⁾

2)Christian Norberg - Schulz(1975) :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P.407

3) Stanislaus Von Moos(1983) 《Le Corbusier Elements of a Synthesis》 P.253

여기서 그는 1956년 3월 James Sterling 이 Architectural Review지에 기고한 예를 들고 있다. 제목은 《르 꼬르뷔제

1)J.P.Bonta(1977) :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서유석 역(1992) 《건축의 표현체계》 기문당

많은 비평가들은 처음으로 초기 이념이 사라지고, 위협스러운 감정적 주관성으로 빠져드는 것을 감지하였으며, 노년의 Le Corbusier가 보수적 경향을 띠게 됨을 인식하게 되었고, 불규칙 형상들의 급작스런 폭발로 직면하고는 이들을 지적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비평가인 Rogers Ernesto는 Ronchamp 교회 건물이 감동적이라 여겼는데, 이는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상에 접근하여, 매우 인간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Pacci는 이 교회를 이탈리아적 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 지중해 지방의 형태가 복구적인 경관에 심어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Benevelo에게 있어서 이 교회 건물은 건축에 대한 Corbusier의 태도에 있어서의 예술적 전환의 결과로 여겨졌으며, Bruno Zevi는 이를 “유기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Giulio Argan은 이것이 아직도 현대의 추잡성과 cubism의 야만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여겼다. 즉, 그는 Corbusier가 종교적 정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으며, 아직도 신비주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영국의 비평가인 Nicolaus Pevsner가 교회를 비합리주의 표현이라 하였고, 미국의 Vincent Scully는 매우 감동적인 것이라고 하였다.⁴⁾

위와 같이 룬상에 대해 그 연원과 정의, 그리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비평이 혼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좀더 확실히 밝히기 위해 해석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해 본다.

1963년 (7판 개정판)에 니콜라스, 페브스너는 “르 꼬르뷔제는 자신 건축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 룬상 성당은 새로운 비합리주의의 논란되는 기념물이다”라고 말하였다.⁵⁾

기디온은 그의 유명한 《Space, Time. And

Architecture》의 1966년 5차 개정판 저술에서 르 꼬르뷔제의 비슷한 시기 작품인 산디가르 (1950), 카펜터 센터(1963), 라 푸레트 수도원 (1960)을 한 장으로 독립시켜 다룬데 비해 룬상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후기작품의 하나로 룬상을 거론하면서 “룬상은 사보아주택과 매우 다르다”⁶⁾하고 또한 “전통적인 순례성당의 평면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라 하였으며, 그 의미는 “르 꼬르뷔제의 발전이 새로운 힘의 원천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을 알게된 데 초점이 맞춰진 우리시대의 개안(unfolding)을 반영한다”라고 보고 “공간 속의 볼륨, 조각적 경향 건축과 조각, 볼트의 문제, 벽의 새로운 활력(revitalization)등 현대건축의 발전에 일치한다”고 하였다.⁷⁾ 그는 서문에서 룬상을 조각적 경향 건축의 하나로 거론하면서 많은 건축가들이 이 경향에 당혹스러워한다고 하고⁸⁾ “룬상 같은 건축은 평범한 건축가의 손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곳에서 오고있다.”고 보고 있다.⁹⁾ 그러면서 룬상처럼 벽의 건축적 재활은 위협할 수 있다. 이미 1960년대 플레이보이 패션에 기만적 위장수단을 주고 있다. ... 이것은 기본 목적이 아니다. ... 르 꼬르뷔제는 다시 개척자로서의 명성을 얻어야 한다.” 하여 룬상이 끼칠 수 있는 위험에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¹⁰⁾

그는 또 “룬상의 벽과 천정 사이를 가르는 좁은 유리 틈새는 (오목 천정이 둘러싼 벽위로 올라서서 멀리 뻗어나는 듯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벽위의 천정은 마치 내려앉은 새와 같다”고 하여 “룬상에서는 유기적 원칙이 전 건물을 충만케 하고 있다”¹¹⁾ 고 하여 룬상이 유기적 건축임을 표현하고 있다.

기디온은 결론적으로 “그의 모든 후기작품에

6) Sigfried Giedion(1966) : 《Space, Time, and Architecture》 P. 554

7) 6)와 같은 책 : P. 555.

8) 6)와 같은 책 : P. 45.

9) 6)와 같은 책 : P. 49.

10) 6)와 같은 책 : P. 53.

11) 6)와 같은 책 : P. 55

의 성당과 합리주의의 위기》로 룬상을 합리주의의 위기로 간주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4) Wojciech G. Lesnikowski(1982) 《Rationalism and Romanticism in Architecture》 박순환의 역(1986) P.345

5) Nicolaus Pevsner(1963) :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 P. 429

는 이성적 - 기하학적과 환상적 - 유기적 원칙 사이의 종합이 일관되고 있다. - 이는 너무나 발산된 실재를 화해시키는 방법을 아는 그 자신의 중대한 능력이다. 마침내 그는 이성적이거나 유기적인 것중 어느것도 전체를 고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¹²⁾ 고 하여 르 꼬르뷔제가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통상을 포함한 후기작품들을 창조하였다고 보았으나 일면 근대건축론의 수호자로서의 자신의 당혹감을 행간에 드러내고 있다.

찰스·젠크스는 1971. 7월 저술한 책에서 기다온의 위와 같은 견해를 정신 분석적이며 전기적 비평으로 바꾸어 분석한다.¹³⁾ 즉 르 꼬르뷔제는 원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처럼 이중적 정체성을 가졌으며, 아이러니한 건물 (일면 기하학적이고 일면 생물 형태적인)과 비극적 인성 (일면 악마적 일면 인간적)을 가졌다고 보고, 합리주의자며 과학자이길 주장했으나 독단적이고 얼버무리는 자세를 견지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아래 작품을 분석하면서 젠크스는 “통상의 풍부한 형태로 부터 신표현주의자들은 자신의 ‘환상 건축’의 정당성을 찾았다고 보지만 ... 중대한 철학적 격변이 일어났다고 보는 생각은 잘못이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르꼬르뷔제의 이중적 감각 (secondary sensations)이 순수형태 (primary forms)에 대비하여 표면에 나타난 것 뿐이다.” 라고 하였다.¹⁴⁾

“통상의 시기에 아메바같은 곡선은 마침내 처음 (primary)의 직각 기하학을 깨고 들어가 마치 그의 회화에서 처럼 지배하게 된다.”¹⁵⁾

통상의 직각 시스템은 바닥에 그려진 십자가에 의해 상징되지만 실제로 이는 일부러 매우 작게 되어 있다. 직각적인 형태는 뒤틀리고 갈라진다. 이러한 시종일관한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들이 르 꼬르뷔제의 후기작품의

전행때문 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이상하게 해석되어 비합리적이거나 표현주의적으로 잘못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¹⁶⁾ 거의 모든 사람이 규율로서 직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이) 새로운 비합리주의라던가 르 꼬르뷔제의 ‘새로운 출발’의 조짐이라고 동의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틀렸다. 피터 블레이크가 지적했듯이 르 꼬르뷔제는 「직각의 시학」이라는 가장 개인적 저작을 통상을 설계할 당시에 쓰고 있었고 통상의 초기 모델과 평면에는 직각 시스템이 모듈러의 규율과 함께 확인했기 때문이다.¹⁷⁾

젠크스는 결론적으로 르 꼬르뷔제가 그의 후기 작품에서 근대 건축 운동으로 부터의 탈출로 임혀지길 의도했다는 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¹⁸⁾

Moos는 1968년에 간행된 전기적인 책에서 르 꼬르뷔제의 생애와 작품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에는 이미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을 불과 물을 가르듯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던 시대는 끝났다. ... 현대의 비평가들이 얼마나 르 꼬르뷔제를 그의 이론, 주장 또는 프로그램 같은 것 속에 고정시키고 가두어 버리려 하고 있는가 잘 알 수 있다. ... 그러나 그가 첫째로 취해야 할 본질적인 행위는 결코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적인 형태의 창조였던 것이다. ... 그의 작품에 단절이란 없다. 통상의 요소는 20년대의 주택, 예컨대 사보아저택의 벽을 파 놓은 안에 존재하고 있다.¹⁹⁾ 고 하면서 비평가의 이념의 틀보다 작가의 순수 창작적 동인으로 부터 기인한 「조형적인 형태의 창조」라는 원론적인 성격을 통상에 부여하고 있다. 그는 또한 ‘르 꼬르뷔제의 건축을 분리하려 할 때는 ... 조형적·공간적 특성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며, 기능적 의미론적 특성에 의해 분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²⁰⁾ ...

12) 11)과 같음.

13) Charles Jenks(1973)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P. 141 ~ P. 152

14) 13)와 같은 책 : P. 153

15) 13)와 같은 책 : P. 153

16) 13)와 같은 책 : P. 157

17) 13)와 같은 책 : P. 158

18) 17)과 같음

19) 3)와 같은 책 : P. 253 ~ P. 254

종교건축도 미리 결정되어 있는 형태의 《코드》등과는 대응하지 않으며 … 룡상의 내부를 공장주빌딩 집회실로부터 구별하고 있는 것은 건물의 종류가 아니라, 조형적 형태의 강력함일 뿐이다.²¹⁾ 라고 하였다.

Prak은 1968년 간행된 그의 책에서 건축과 사회적 역사 사이의 지속적 상관성을 찾는 일련의 작품분석의 일환으로 룡상을 택하고 있다. 그는 룡상교회를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특징은 형태에 의한 것이라 보고 그것이 자연 속에서 찾아졌으며 “자연 경관내에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어, 그 자연을 침범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 굴곡이 있는 형태들과 모든 부분들을 일체로 융합시킨 것은 건물과 주변의 시공간경간의 융합을 반항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때 르 꼬르뷔제가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구조의 정직성은 완전히 통일된 단일체적인 외관을 위하여 희생되고 있다.”²²⁾고 하면서 결국 유기적 건축으로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상화된 자연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소 바로크적인 의장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²³⁾고 하였다.

브루노 제비는 1973년의 저술에서 룡상의 내부의 빛의 취급으로부터 바로크 적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는 모든 건축적 혁명은 공식적 규칙(code)를 거부하고 그것을 최저로 낮추면서 시작된다고 확신하며 르 꼬르뷔제는 룡상에서 1921년 부터 지켜온 5원칙을 부인했다고 하면서²⁴⁾ 밝고 불가해 한 빛의 효과를 얻기 위해 크기와 형태가 다른 구멍을 룡상의 벽에 산재함으로써²⁵⁾ 바로크로 회귀하였다고 하였다.²⁶⁾

즉 그는 1920 - 30년대의 합리주의 고수자 역을 룡상을 설계하면서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다. 반복하여 룡상은 표현주의의 혼합물이며, 빛에 있어, 때론 현혹적이고 때론 과장스런 “바로크 유평”의 요소가 점철된 변칙적 예술이라고²⁷⁾ 1950 - 60년대 걸쳐 르 꼬르뷔제가 룡상에서 큰 변신을 한 후 후대로의 교육을 그만두고 상속하지 않아, 라 뚜레뜨 수도원이나 산디 가르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았다.²⁸⁾

크리스찬 노베르그 솔츠는 1975년의 저술에서 룡상이 완공된 후 방문한 사람들은 근대 건축에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동시에 정말 의미있는 종교 건축의 재탄생을 의미하였다. 바로크 교회의 건설 이래로 200년동안 진정 의미있는 교회 건축이 거의 없었으므로, 룡상의 등장은 기본적인 존재의 의미를 갖는 새로운 관심의 징조가 되었다고 말한다.²⁹⁾에워쌈과 개방의 종합은 근원으로 회귀하는 진실한 경험을 불러일으키며 방어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징성, 모호성은 모든 형태가 이중의 자연이거나 시공일관한 변형(metamorphosis)을 수행한다. 남측 벽면의 기울어진 벽은 성벽과 소통에의 깊은 열망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며 외부 성소와 내부 사이의 접촉점을 향해 상승하고 굴곡된다고 하여 남동쪽 높은 벽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³⁰⁾

지붕은 내부를 집중시키는 무거운 중량을 지니며 사람들에게 지상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인식 시켜 준다.³¹⁾는 말처럼 하이데거의 실존적 현상학의 수사학을 보여준다.

찰스젠크스는 1977년 《포스트 모더니즘》을 저술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비극적 아이러니로서의 르 꼬르뷔제가 아니라, 하나의 모더니즘 이후의 일반적 현상으로 룡상을 조망한다. 이

20) 3)와 같은 책 : P. 142

21) 3)와 같은 책 : P. 143

22) Prak (1980) :

《Language of Architecture》 P. 180

여기서 구조의 정직성 문제는 남측 벽이 기둥 사이에 메쉬를 넣어 시멘트 랑틀 마감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23) 22)과 같은 책 P. 181

24) Bruno Zevi (1973)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25) 24)과 같은 책 P. 222 - 226

26) 24)과 같은 책 P. 196

27) 24)과 같은 책 P. 194

28) 24)과 같은 책 : P. 68~69

29) 2)와 같은 책 : P. 408

30) 2)과 같은 책 P. 408

31) 2)과 같은 책 P. 408

때 룡상은 여러 가지 은유(metaphor)의 모체로서 인식된다.³²⁾ 오리, 한척의 배, 기도하는 손, 모자, 또는 대화하는 사람의 그림이 실제 건물과 놀랄 정도로 정확하다고 보고 있다.

Kenneth Frampton은 1980년의 저술에서 르 꼬르뷔제의 1930년대 - 60년대를 풍토 건축(vernacular)의 기념비화한 시대로 보고 있다. 룡상의 근원으로서 Maltese tomb와 Ischian vernacular를 예로 들고 감춰진 철근 콘크리트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백색 벽의 질감을 지중해 민속 건축으로 규정하며³³⁾ 한편으로 룡상의 쉘 지붕을 성스러움의 기초로서 르네상스 등의 20세기 등가물로 그 형태를 세우려 노력한 것처럼 여기며³⁴⁾ 아크로폴리스에 대한 조각적 여운이 1923년 이후 그에게 고양된 파토스를 일으켰다고 하여³⁵⁾ 과거 건축으로 부터의 역사적 은유를 룡상에 부여하고 있다.

찰스 . 쟁크스와 Kenneth Frampton에 연이어 편집된 한 책은 언어학에서 시작된 기호학의 개념을 건축 해석들에 도입하여, 유추(Analogy)라는 개념을 룡상을 대상으로 하여 깊이 거론한다.³⁶⁾ 즉 르 꼬르뷔제가 제도판 위에 놓인 룡아일랜드에서 쫓겨온 게 꺾대기가 룡상 교회의 지붕이 되었다고 말한 사실에서 유추적 디자인으로 볼 것이다.

Wojciech G. Lesnikowski는 1982년의 책에서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로 순환되는 건축사의 이원적 입장의 시각에서 건축을 바라보며 룡상을 유럽 문화 조류에서 항상 저변에 깔려 있는 고딕적(신비주의)으로 회귀한 건물이라 보았다.³⁷⁾

초기 기능주의에서 찾아볼수 없는 답이 다시 출현하여 - 교회의 내부는 신비롭고, 감각적이

어서 거의 고딕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창조하고 있다.³⁸⁾

주요 예배 공간보다는 측면 성소의 모습에 더욱 끌리게 된다. 결국 이는 그리 “카톨릭적”이지 못한데, 그 이유는 위계적 구조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에 비해 내부가 중요성을 띠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역동적이며 “민주적인 창조물”이므로 전통과의 분절을 인신한 비평가의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³⁹⁾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평가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고유한 잣대에 따라 룡상을 여러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연대기적으로 볼 때도 근대 건축 이후의 건축 이념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양식론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페브스너는 신 비합리주의라고 규정하였다. 기디온은 국제주의 양식이 끝 근대건축이라는 등식을 기본으로 영향력을 끼친 건축사로서 룡상의 조각적 경향이 거장만이 다룰 수 있는 초월적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근대건축 이념을 해치는 경향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룡상 자체는 유기적 건축으로 르 꼬르뷔제의 천재성 속에 근대 건축 이념과 통합된 작품으로 보았다.

찰스 쟁크스는 기디온이 말한 천재성을 비극적 이중성으로 환치하여 룡상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근대 건축 운동에서의 탈피 조짐을 읽었으며, 6년뒤인 1977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건축 전반적 경향에 대한 일반화로의 욕구 안에 룡상을 은유의 실례로 자리 매김 하였다. 한편 Moos는 전기적 비평이 가지는 속성처럼 르 꼬르뷔제의 천재적 생애의 하나로 룡상을 바라보면서 양식을 초월한 조형적 형태의 창조라는 원론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Prak은 사회적, 심리적 상황 안에서 룡상을 바라보므로 자연 환경과 형태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결국 유기적 건축이며 바로크적 의장을 사용하

32) Charles Jenks(1977) 《The Language of Post modern Architecture》 P.48-49

33) Kenneth Frampton (1980) 《Modern Architecture》 P. 228

34) 34)과 같은 책 : P. 228

35) 34)과 같은 책 : P. 229

36) Geoffrey Broadbent(1980)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P. 313

37) 4)와 같은 책 : P. 347

38) 4)과 같은 책 P. 347

39) 4)과 같은 책 P. 348

고 있다고 하였다.

제비는 룡상에서 바로크 적인 요소와 표현주의 혼합물을 보았으며 매너리즘에 도달하는 징검다리로서 여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 노베르그 슐츠는 하이데거에 경도된 실존 공간론의 수사학으로 룡상의 신성 공간의 성격을 묘사한다.

프램톤은 자신이 2년후인 1982년에 제창한 5대 이즘 중 하나인 리저널리즘(Regionalism)에서 지역적 건축, 장소성의 복귀를 중요시한 것을 예상케하는 전 단계로서 룡상을 풍토 건축의 하나로 보며 한편으로 과거부터의 역사적 은유로 보고 있다. 쟁크스와 프램톤에 이어서 건축에의 기호학 적용을 집대성한 1980년의 책에서는 룡상을 유추적 디자인의 하나로 예를 들고 있다.

레스니코프스키는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라는 이원론의 순환 개념 틀 안에서 룡상을 바라보며 고딕적이라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건물을 놓고 1963년에서 1982년에 이르는 짧은 기간동안에도 해석자들이 각자의 해석 틀과 시대에 따라 새로 대두되는 개념에의 적용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양식적 결론을 내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건물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건물을 분류하는 것⁴⁰⁾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별적인 준거틀내에서만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브로드벤트는 건축작품이란 그 당시 — 그 건축물이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라 그 건축물이 해석되는 시대 — 의 시대정신에 따라 해석된다고 하였으며⁴¹⁾ 때로 역사가와 비평가는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기도 한다.⁴²⁾

르 코르뷔제 자신은 건축은 다양한 “양식들”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⁴³⁾ 그래서 그는 룡

상이 바로크 적이란 평을 듣자 “... 이 성당은 바로크라고 이름 붙혀질 그럴 건물이 아니다. ... 일종의 애매한 별명이자 비난의 뜻을 함축한 이런 용어가 싫다.”⁴⁴⁾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는다.

1956년 CIAM 붕괴 이후 근대 건축의 종말을 부추기거나, 이미 그 종말을 기존화하고 새로운 이즘들이 붓물처럼 쏟아져나왔다.

찰스 쟁크스의 포스트 모더니즘(1977)과 레이트 모더니즘 개념과 케네스 프램톤의 5가지 이즘의 현대건축 정의(1982)와 그 밖의 Neo Rationalism, 지역주의, 맥락주의, 래디칼리즘 벤츄리의 절충주의 또는 최근의 해체주의(1988 이후) 경향까지 여러 현대 건축 이념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 룡상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 몇몇 주의의 틀로 보면 재해석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은유나 유추로서의 예로 든 걸 제외하면, 1980년대 초 이후 중요한 비평가에게서 룡상은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닌 것 같다.⁴⁵⁾

이런 현상은 J.P.Bonta의 해석과정으로 보면 침묵과 망각의 단계로 보여진다. 그러나 망각이 반드시 작품 해석과정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재해석이 뒤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⁴⁶⁾

3. 재해석을 위한 분석

하나의 해석을 비평하는 재해석을 위한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그 건물에서 간과되었던 측면 — 어떤 해석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것 — 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⁷⁾

44) Le Corbusier (1956)

《Les Carnets de la Recherche Patiente》

김평돌 역 (1994) 룡상 P.7

45) 랫프냐니는 이미 룡상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호정 역 (1989) 현대건축조류 P. 161 《Architektur und Städtebau des 20 Jahrhunderts》

Vittorio. M. Lampugnani (1980)

46) 1)과 같은 책 P.245

47) 1)과 같은 책 P.268

40) 1)과 같은 책 P.162

41) 1)과 같은 책 P.256

42) 1)과 같은 책 P.263

43) Le Corbusier (1927)

《Towards a New Architecture》

장성수의 역 (1987) P.45

롱상에 대한 해석의 공통점은 비합리주의든 유기적 건축이던 바로크건 고딕이건 간에 기존의 5원칙과 순수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르 꼬르뷔제 자신의 발언과 창작의 근대건축 이념 즉 합리주의에서 많이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다.

찰스 쟁크스는 이를 발언과 창작 사이의 이중성으로 해석하고 또 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이론과 작품사이의 불일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⁴⁸⁾ 그러나 좀 더 롱상을 정밀히 분석하면 이에 대한 반론적 재해석이 가능하다.

평면의 직교체계, 모듈러의 적용등 그의 주장이나 도면을 깊숙이 관찰하면 합리주의의 강력한 지속을 알 수 있다.

그는 곡선형태의 볼륨은 구형의 발생기에 의해 지배받는다⁴⁹⁾고 말하였으며 평면은 발생기⁵⁰⁾라 하였다. 롱상의 평면에서 기둥은 벽체 속에 감춰져 있으나 4.3m 스패의 주열 여섯베이가 연속되며(서쪽 끝에 타워 부분만 다름) 제대와 홈통을 잇는 동서 중앙축은 거의 기둥사이의 중심선과 일치한다. 평면도는 정사각형 그리드 안에서 각부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1>

르 꼬르뷔제는 "(롱상에서) 모듈러는 모든 곳에 적용된다. 나는 방문객에게 건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차원을 즉시 전달하기를 원치 않는다."⁵¹⁾고 하였는데 여기서 잘못 번역된 '원치 않는다'의 원문인 (Je) 'Défie' 단어에는 '느낄 수 있다면 느껴봐라'는 도전의 의미가 담겨있다. 예로 든 입면도는 출입문의 높이와 창호, 성가대, 성모상 개구부, 설교단, 난간 등의 높이가 동일한 치수로 되어있으며, 단면도에서도 내부의 고해소 상부, 출입문, 설교단 하부, 성가대 하부가 같은 높이로 맞춰있고 같은 페이지에 모듈러의 그림이 첨가 설명되어있다. 지붕은 2.26m 중공의 막이며, 지붕의 가장 낮은 곳의 높이는 2.26m의 두배인 4.52m로 계획되었다.⁵²⁾ 또한 십자가의 치수도 세로대가 113cm,

가로대는 70cm로 되었다.⁵³⁾ 바닥의 줄 눈도 모듈러에 의한 것이다.⁵⁴⁾ <그림2> <그림3>

「모듈러」는 1948년 발표되었는데 그 속편인 「모듈러2」는 롱상이 준공된 1955년 저술되었다. 그는 여기서 '모든 사물은 착오 없는 수학적 조합에 기초하였다. 모듈러를 가지고, (롱상에서), 실수 피하기 게임에 눈을 떼지 않도록 하는 자유로운 유희를 하게 되어 즐겁다⁵⁵⁾고 하여 모듈러를 적용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르 꼬르뷔제의 심술궂음에 비평가들은 「실수를 피하지 못하였거나」, 그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간과하였다는 심증을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론 초기안부터 롱상이 1953년 봄 착공된 후⁵⁶⁾ 한참 지난 1954년 2월 5일까지도 포기하지 않은 독립 종탑의 존재에서 정방형 후레임으로 형성된 합리주의 표현의 그리드 체계를 볼 수 있다.⁵⁷⁾ <그림4>

1950년 5월 20일 최초의 스케치후 1950년 11월 22일의 초기안은 네 개의 베이(bay), 3개층의 실면적이 없는 종탑을 보여주고⁵⁸⁾ 있는데, 이것이 3년이 훨씬 지나 한참 공사 중일 때까지 포기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실행되지 않는지는 찾아낼 수 없으나⁵⁹⁾ 마지막까지 미련을 가진 이 종탑에 대한 계획은 그의 합리주의의 편린이라 볼 수 있다. 이 종탑은 북쪽 부출입구에서 한 베이만큼 격리되어 계획되었으며 출입구도 연속되는 축을 보여 주며 이는 어느 책에서나 공통으로 보여지는 배치도에서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

52) 45)와 같은 책 : P.121
(실제로는 4.78m로 시공되었다.)

53) 45)와 같은 책 : P.128

54) 르 꼬르뷔제 전 작품집 제6권 : P. 18

55) Le Corbusier (1958) 《Modulor 2》 P.254

56) 문수일 역 (1993)

《건축기행 르 꼬르뷔제 알도와 편란드》 P.76

57) Michael Graves(1981)

《Le Corbusier Selected Drawings》 P.40

58) 57)과 같은 책 P.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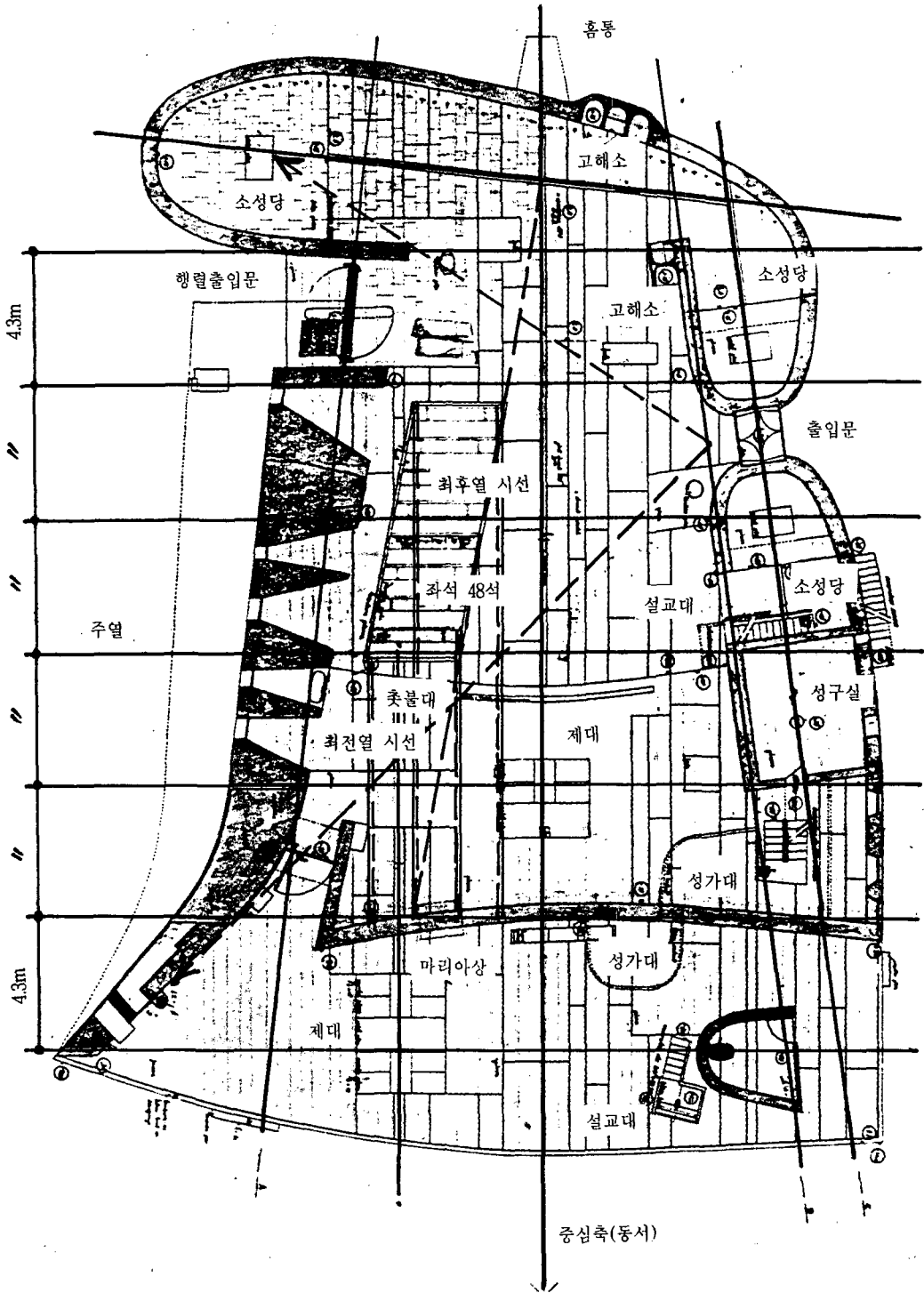
59) 이것이 공사 감리 중 작가의 결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디온이 말하는 클라이언트와 의 갈등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48) 1)과 같은 책. P.205에서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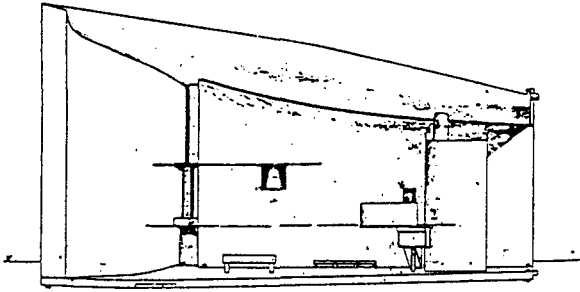
49) 45)와 같은 책 : P.119

50) 45)과 같은 책 :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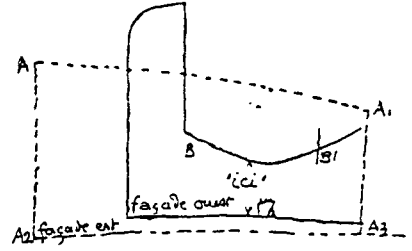
51) 45)와 같은 책 : P.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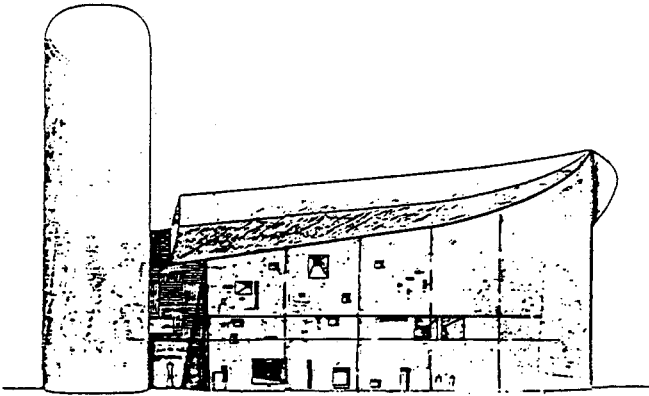
< 그림 1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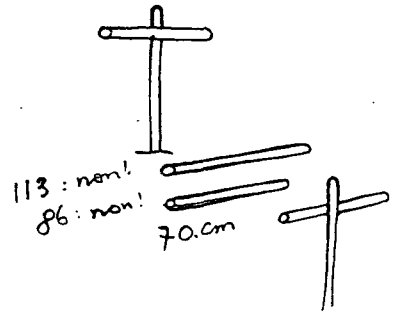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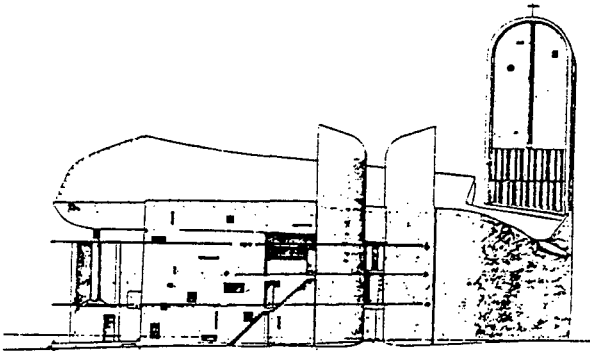
B-B₁ (서측 지붕선)은 과도치듯 솟아올라 A-A₁, A₂-A₃의 동측입면을 형성한다.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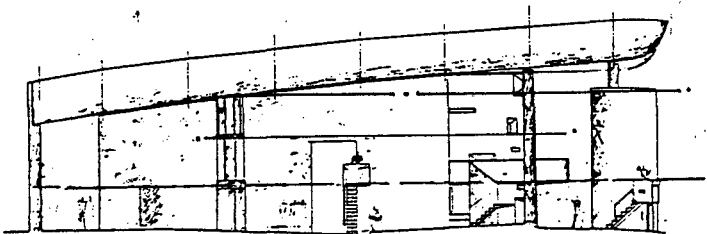


<그림 3>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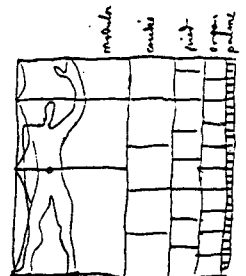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그림 2> 입면도



<그림 11> 단면도



다. 현재 종탑은 서쪽 숲 속 건물 동서 주축 끝에 목재틀의 재료로 비건축적으로 세워져 있다.

위의 도면을 살펴볼 때 종탑과 함께 실현되지 않은 것은 순례자들의 외부 공간을 형성할 인공대지이다. 이는 1950년 11월 22일 도면 중 남측 입면도를 보면 확실히 나타나는데 남동쪽으로 하강하는 대지 경사위에 콘크리트의 벽으로 구조되어 스타디움처럼 계획된 외부 예배석 구조물이다.⁶⁰⁾ 이것도 1954년 2월 5일의 스케치까지 남아 있다가 최종적으로 건설된 것은 순례자 호스텔과 피라미드이다. 많은 해석자 중 아무도 이 순례자 호스텔과 피라미드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모두 르 꼬르뷔제의 설계에 의한 것 때문이다.⁶¹⁾ 피라미드는 4방위에 정확히 일치하며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성과 함께 남쪽과 서쪽은 순례자를 위한 좌석으로도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순례자 호스텔의 지붕면이 성당쪽으로 경사지고 잔디가 입혀진 것은, 이 건물이 피라미드와 함께 인공대지의 초기 계획에 대신한 대체물이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그림5>

피라미드는 대지 경계선에 걸쳐있는데, 그 북쪽과 서쪽, 동쪽과 남쪽 계단 사이 격인선이 대지경계와 일치한다. 외부 계단의 중심에서 이 피라미드의 경계선까지를 반지름으로 하여 반원을 그리면 남쪽에서 기계실 위에 덮인 흙무더기에 도달한다. 언덕에는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므로 서쪽의 오목한 지붕으로 빗물을 모았고, 조각적 형태의 콘크리트 홈통을 통해 서측 수조에서 모아진 물은 지중관을 통해 기계실로 연결되어 순례자 호스텔에 공급되는데 (성당내에는 위생 시설이 없다.) 흙무더기는 이 기계실 상부를 보호하는 기술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순례자를 위한 외부미사공간의 끝 지점으로서 종지부의 역할을 한다. <그림6>

순례자 호스텔은 반원의 외부미사 공간에서

벗어나 원등고선을 상당히 절토하여 별도의 외부공간을 형성하였다. 순례자 호스텔은 성당의 부속기능인 사무실, 신도회실, 커피룸, 숙소등으로 사용되는데, 성당의 남동측의 날카로운 모서리(edge)가 마치 배의 선두가 행진하듯이 이 건물의 중심부를 향하여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외부로부터 룡상 마을에 진입해오면 룡상은 마치 아크로폴리스 위의 파르테논처럼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한다. 마을 골목을 돌아 진입로로 올라오면 룡상의 입구가 나타난다. 이 첫 번째 시점에서 보면 순례자 호스텔의 서측 단부와 흙무더기, 성당 남측 벽면의 창 부분까지 시선이 일직선을 이룬다. 순례자 호스텔이 성당의 남동측 모서리와 계단 모습을 다 파악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차단한다. 좀 더 올라가면 순례자 호스텔의 앞마당이 나타나고 순례자 호스텔의 서북측 단부와 흙무더기, 남동측 모서리, 나아가 외부계단의 설교단과 옆의 둥그런 부분까지 시선이 일직선이 되나 역시 흙무더기가 남동 모서리의 일부를 차단한다. 세 번째 시점에 올라서면 좌로는 관리인 숙소, 우로는 기계실과 흙무더기의 교차가 이루어지고, 제 1시점으로부터 이곳까지의 진입로는 성당의 행렬 출입문으로 정확히 향한다. 이 곳에서 남동측 모서리가 확실히 인식되기 시작하는데 진입로의 각도가 조금 왼쪽으로 꺾여 서쪽 숲을 바라보게 된다. 남동측 모서리부터 굴곡된 벽체와 그와 반대로 점차 커지는 지붕 깊이가 행렬 출입문으로의 방향을 암시하며 진입을 유도한다. 마지막 네 번째 시점에서 진입로는 끝이 나고 행렬 출입문은 정면에 위치하게 되는 한편 서측 숲과 성당 탑의 둥그런 형태 사이의 외주 공간으로 시선과 북측 일반 출입문으로서의 동선의 흐름을 유도한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시점에 이르는 동안은 굴곡된 벽체, 지붕 깊이의 변화, 탑의 돌출로 이루어지는 포물선 형태로 지각되는 진입 공간이 형성되며, 이 공간은 외부미사 공간이 남동쪽으로 돌출된 모서리와 설교단과 옆의 둥근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포물선 형태와

60) 57)과 같은 책 P.108

61) 22)과 같은 책 : P. 170~171

상당히 유사하게 지각된다. 이는 내부 소성당의 확실한 포물선 형태와도 감각적으로 유사한 공간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7~10>

르 꼬르뷔제는 등고선상 가장 높은 곳에 성당을 배치하고, 4개의 지평선을 정확하게 그려서 축을 삼았다고 하였는데⁶²⁾ 이는 위와 같이 순례자 성당의 요구조건인 외부, 내부 공간과 진입공간의 형성을 주어진 대지조건에 맞추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쪽과 동쪽의 벽이 오목하게 되고 북쪽과 서쪽의 벽이 블록하게 계획된 것은 거의 필연적이었으리라 여겨진다.

룡상의 내부 공간은 외부공간과 비교해볼 때 너무 빈약하다고 흔히 말해진다. 이는 순례자를 위한 성당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간과한 결과로 생각된다.

외부 미사가 10000명의 순례자를 포용하는 이유로, 제단 뒤 벽면이 오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부제단 뒤 벽면은 블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외부 제단과 지면과의 턱은 마치 극장 무대처럼 청중을 향해 블록하게 확산되며 내부 제단은 이와 반대로 오목하게 되고 그 선을 따라 목재성찬란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가 역투시도적으로 공간 잡혀진 것은 좁은 면적의 내부 공간감을 긴장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만약 양 벽이 평행을 이루어 정방형처럼 되었다면 제단과의 종축길이는 무척 짧아져서 깊이가 없어졌을 것이다. 반대로 양벽이 제단을 향해 좁혀졌다면 똑같은 우려가 있거나 외부 제단과의 건축적 결합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제단 좌우측단의 꺾인 부분이 둔각을 이루어 현재와 같은 예각의 긴장된 공간감을 생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림1>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모 마리아 상의 위치이다. 중세기 이후 수많은 독·불간 전투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 성물을 기리기 위해 룡상이 건립된 것이므로 외부제단에서는 제대 바로 뒤에서 약간 우측에 내부제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멀게 우측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당내 좌석에

서의 시선에서 정면에 위치한다.

48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의 최전열과 최후열에서의 시선은 마리아 상에서 겹친다. 이 좌석들이 비스듬히 각도를 이룬 이유는 남측 벽에 평행하게 하여 통로를 준 이유도 있지만, 제단을 향한 중심부에 순례자들이 서서 미사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좌석 앞에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한 촛불대가 비교적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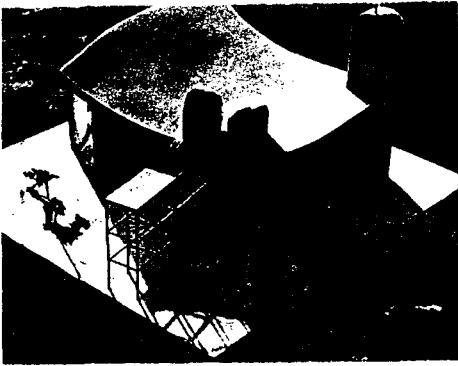
내부 공간의 빛의 처리는 동쪽 벽과 남쪽 벽에 각기 다른 크기의 구멍을 뚫거나 상부에 10cm의 틈을 두어서 해가 일출 후 등에서 남으로 움직임에 따라 인입되는 빛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도록 하였는데, 큰 탑은 북쪽의 균일한 빛이, 작은 탑 중 하나는 서쪽의 일몰에 가까운 빛이, 또 하나는 환한 동쪽 빛이 들어오게 하여 내부의 빨간색과 함께 순례자의 신앙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빨간색은 예수의 상징이다.) 이러한 순례자 탑으로부터의 빛의 도입을 제외하면 북쪽과 서쪽은 천정과 벽 사이의 틈새도 없으며 제단부를 제외하면 성당내부로 빛이 들어오는 구멍도 뚫려있지 않다. 북측과 서측은 외부 입면효과로서 빛의 작용을 더 느낄 수 있다. 이는 남측, 동측 벽이 오목하고 북측 서측 벽이 블록하다는 대조적 상황과 일치한다.

룡상의 바닥은 대지의 등고선에 따라 동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단면도를 살펴보면 서쪽 소성당 부분에서 턱이 생기고 부터는 제단 끝까지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외부 제단은 순례자를 향하여 내려간다. 천정은 높아지는데 서측에서 중앙부가 낮고 단부로 이 선이 점차 곧게 퍼지면서 동측으로 계속 상승하여 외부지붕까지 계속된다. 르 꼬르뷔제는 이에 대해 서측 지붕선이 과도치듯 솟아올라 동측입면을 형성한다고 표현하였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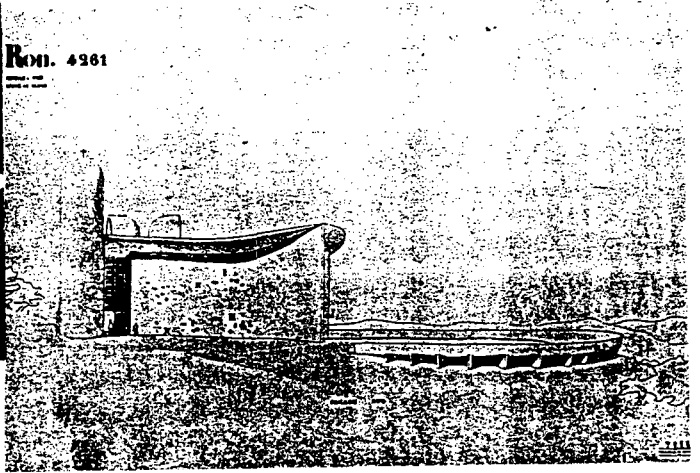
이러한 단면에서 느끼는 공간은 평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역투시도적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서측의 인간을 압박하는 듯이 낮은 천정 (이곳

62) 45)와 같은 책 : P.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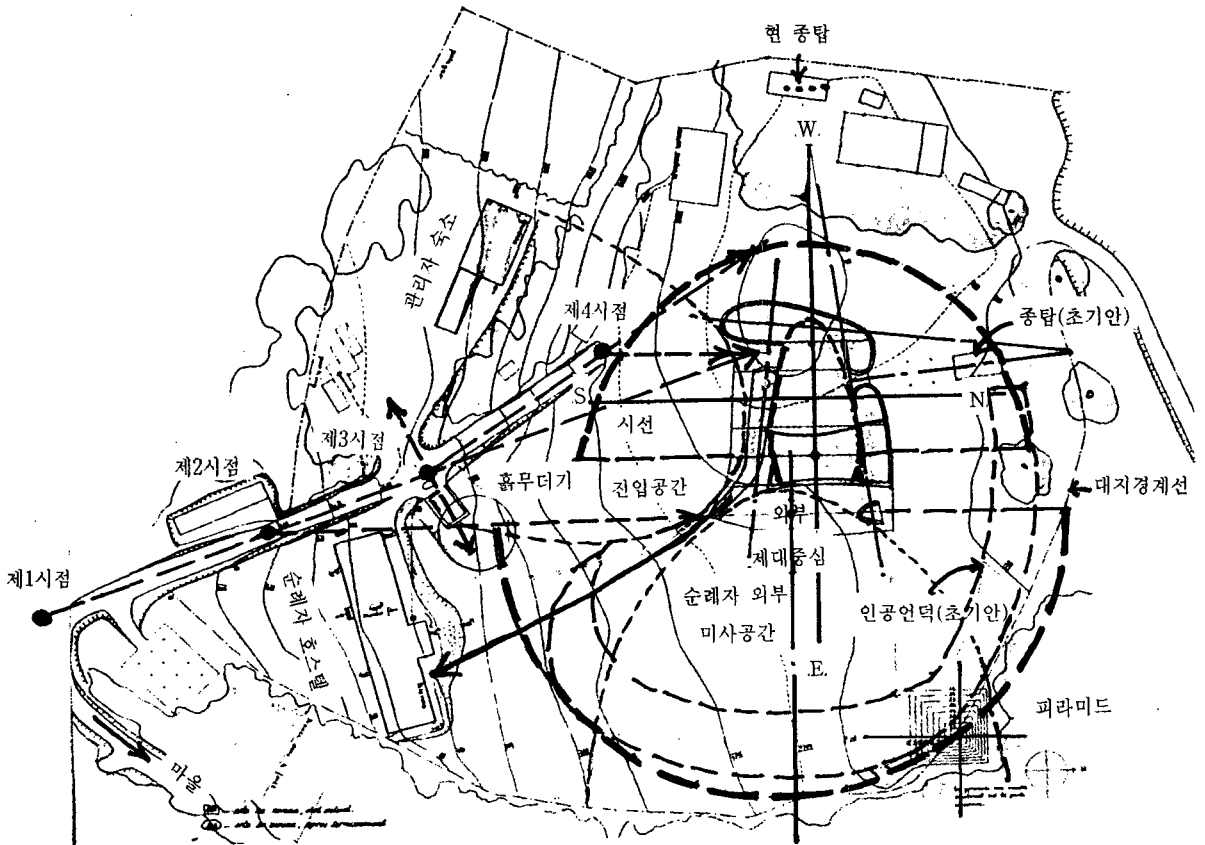
63) 45)와 같은 책 : P.121



<그림 4> 종탑(초기안)



<그림 5> 인공대지(초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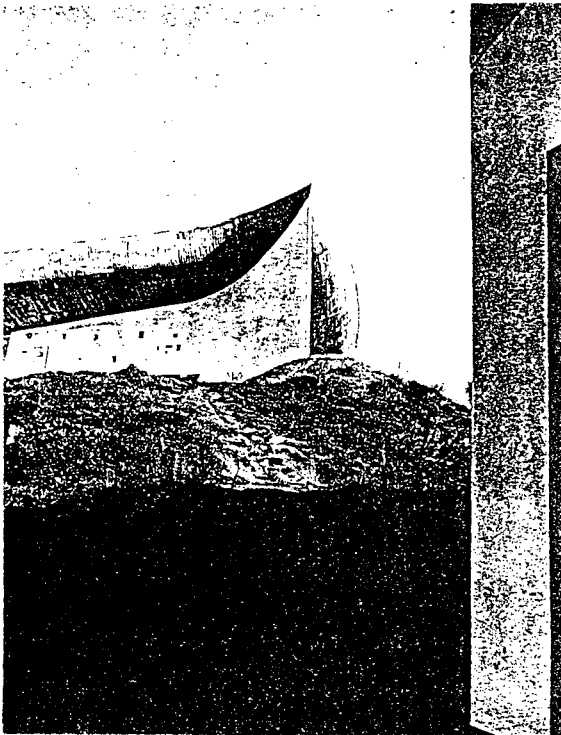
<그림 6>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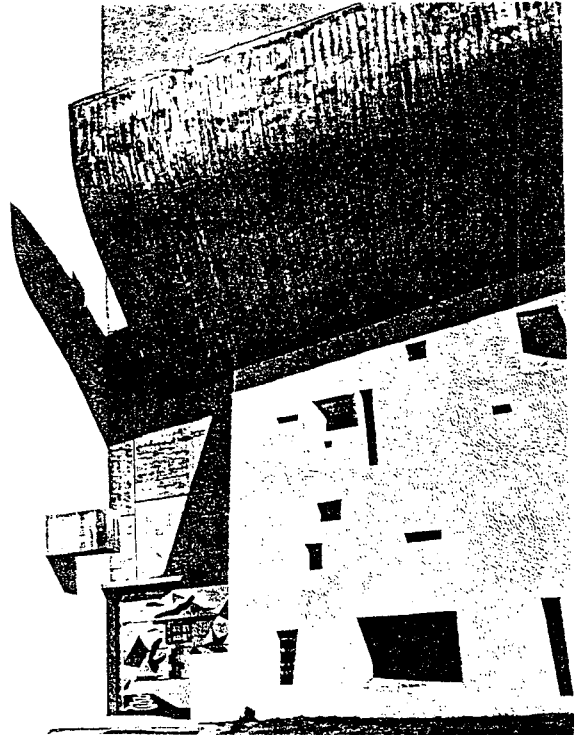
<그림 7> 제 1시점



<그림 8> 제 2시점



<그림 9> 제 3시점



<그림 10> 제 4시점

에 고해실이 배치되어 있다.)에서 요동치듯 상승하여 제단의 신성공간으로 고양되는 듯이 여겨지며 노출콘크리트의 거친 천정은 외부 제단 위 지붕으로 계속되다가 끝을 하늘로 향하면서 끝나고 그 정점은 남동쪽 모서리 수직벽의 꼭대기이다. <그림11>

4. 재해석의 가능성

흔히 근대건축가들은 건물 주변의 맥락을 도외시하였다고 알려져 왔으며 특히 르 꼬르뷔제는 그 독창적 형태와 자신의 발언으로 인하여 그러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외부 공간과 그에 따른 내부 공간 형성의 분석을 통하여 간과되거나 과소하게 관심 받았던 주변 맥락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리라 본다.⁶⁴⁾ 다시말하면 맥락주의(Contextualism) 해석의 틀로서 룡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이다.

룡상의 형태와 공간 세부에서 보이는 상호대조적인 요소와 그 변증법적 통합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르 꼬르뷔제의 다른 작품에서 유사하게 던져지는 기호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그 건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기호학의 틀로서 본격 재해석해보면 더 많은 의미를 룡상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⁶⁵⁾

룡상에 대한 기존 해석에서 빈발하는 풍토건축(Vernacular), 르 꼬르뷔제의 아크로폴리스에 대한 영향과, 사보와 주택을 비롯한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 분석한다면 지역주의(Regionalism)의 틀로서도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룡상의 남쪽 벽에서 보이는 구조와 시멘트 뿔철의 「두꺼운」 벽체의 기묘한 결합, 또는 중간이 빈 6cm 두께의 「무거운」 노출 콘크리트 지붕과 같은 건축 행위에 대하여, 근대건

64) 김 역중은 르 꼬르뷔제의 작품 중 도시에 설계된 주택 작품들에 대해 도시맥락과의 인과성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

65) 비난트 크라센은 《서양건축사》에서 건축의 기호론적 삼각형이란 서두하에 건축적 실체와 의미의 관계로 건축작품을 해석하였다.

축이후 건축적 진실성보다 표현 중심적인 경향의 단초로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전기적인 「비극적인 이중성」이란 틀 대신에 창조성의 정신심리학적 분석 틀로서도 해석이 가능하며, 종교건축의 역사적 단계의 하나로도 룡상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은 연구에 따라 본 논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기존의 규범적 해석의 다양성은 인정되나 비평가들이 각기 일관된 준거들에 의해서 해석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적 본질보다는 각 시대의 건축이념에 따라 해석이 좌우되었다.

본 연구는 룡상에 확고히 존재하는 합리주의를 직각과 모듈러를 통해 밝히고, 종탑 인공대지 피라미드, 흙무더기 등의 구조물과 순례기능의 분석을 통하여 룡상이 기능과 주변 맥락 등 건축적 요구조건에 정확히 조응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맥락주의나 지역주의 건축기호학, 창조심리, 종교건축의 틀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룡상은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많은 순례자와 건축가를 감동시키고 있다. 아마도 논란이 없는 건축은 감동이 없는 건축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1. J.P.Bonta(1977)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서유석 역(1992) 《건축의 표현체계》
2. C.N.Schulz(1975)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3. Stanislaus Von Moos(1983) 《Le Corbusier Elements of a Synthesis》
4. Wojciech Lesnikowski(1982) 《Rationalism and Romanticism in Architecture》

- 박순관외 역(1986)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건축》
5. Nicolaus Pevsner(1963)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
 6. Sigfried Giedion(1966) 《Space, Time and Architecture》
 7. Charles Jenks(1973)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8. Prak(1980) 《Language of Architecture》
 9. Bruno Zevi(1973)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10. Charles Jenks(1977)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11. Geoffrey Broadbent(1980)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12. Le Corbusier(1927) 《Towards a New Architecture》
장성수의역(1987)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13. Le Corbusier(1956) 《Les Carnets de la Recherche Patiente》
김평돌 역(1994) 《룽상》
 14. Vittorio M. Lampugnani(1980) 《Architektur and Städtebau des 20 Jahrhunderts》
 15. Kenneth Frampton(1980) 《Modern Architecture》
 16. 르꼬르뷔제 전 작품집 제6권
 17. 문수일 역(1993) 《건축기행. 르꼬르뷔제, 알토와 핀란드》
 18. Michael Graves(1981) 《Le Corbusier Selected Drawings》
 19. Le Corbusier(1958) 《Modulor 2》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of Ronchamp chapel

Lee Jeong Kyu

(Assistant Professor, Pai Chai University)

ABSTRACT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comprises the passage from blindness to pre-canonical responses, then the canonical interpretation and its dissemination, and finally silence and oblivion. But obliv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e conclusion of the interpretative process of work. A reinterpretation may follow.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the source of reinterpretation of Ronchamp Chapel. I analyzed the canonical interpretation, the site, function, and form of the chapel.

I concluded that the contextualism, semiology, regionalism and other architectural conception may be the frame of reference for reinterpretation of Ronchamp Chapel.